

여제 박성현 “왕관의 무게, 부담 갖지 않을래요”



박성현이 1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피나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18번 홀에서 챔피언 버디퍼트를 성공시킨 뒤 갤러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그는 이번 우승으로 120일만의 세계랭킹 1위 탈환을 예약했다. 로저스미 아칸소주 | AP뉴시스

“다시 1위 되면 순위 연연 않겠다 다짐
그래도 세계 1위 된다는건 정말 좋아
17번홀서 인비 언니·효주랑 동타 알아
우승 기다려준 노무라·고진영 밥솥 것”

세계 왕좌를 되찾은 박성현(26·솔레이어)은 “부담감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을 통해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복귀를 예약한 박성현은 1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피나클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된 우승 기자회견을 통해 “(여)달 전 세계랭킹 1위에 있으면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는 ‘만약 다시 한번 1위로 올라간다면 순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박성현은 3월 HSBC 여자월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면서 4월부터 순위가 하락했다. 지난달 한때 세계랭킹이 4위까지 내려가면서 정상과 멀어지기도 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앞세워 3개월만의 왕좌 복귀를 앞둔 박성현은 “그래도 1위가 되는 일은 정말 좋다”고 환하게 웃으면서도 “1위에 연연하지 않고 싶다. 부담감도 떨쳐내고 싶다. 대신 매경기 항상 같은 플레이를 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성현은 이날 박인비, 김효주, 다니엘 강 등의 거센 추격을 받았다. 18번 홀 마지막 버

날짜	세계랭킹	직전 종료 대회	대회 성적
3월 5일	1위	HSBC 여자월드 챔피언십	우승
4월 8일	2위	ANA 인스퍼레이션	공동 52위
4월 29일	3위	LA 오픈	컷 탈락
6월 17일	4위	마이애 LPGA 클래식	공동 39위
6월 24일	2위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준우승
7월 2일	1위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

* 7월 2일 세계랭킹은 발표 예정

디퍼트가 들어갈 때까지 우승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지난주 KPMG 여자PGA 챔피언십처럼 준우승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18번 홀 챔피언 버디 퍼트로 우승을 지킨 박성현은 “오늘 경기는 ‘될 듯 말 듯’ 그렇게 풀렸다. 초반 버디를 많이 잡아야 후반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기회를 많이 놓쳤다. 그래도 계속 기다리자는 말을 되새기면서 편하게 치려고 했다”고 말한 뒤 “17번 홀에서 (박)인비 언니 그리고 (김)효주와 동타임을 알았다. 다니엘 강 언니의 스코어는 보지 못했다. 어쨌든 남은 두 홀 중 하나는 무조건 버디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리더보드를 보지 않았던 마지막 홀에서 카를로타 시간다가 퍼트 마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우승이 다가왔음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4개월만의 우승 감격을 맛본 여왕은 끝으로 소박한 축하 뒤풀이를 예고했다.

“우승 순간까지 기다려준 노무라 하루와 고진영에게 맛있는 밥을 꼭 시켜주고요.”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퍼트 난조 박성현, 홀로 싸운 120일간의 여정

4월 기아클래식 후 부진에 빠졌지만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금씩 감각 회복
여자PGA 챔피언십 2위 우승 신호탄

박성현(26·솔레이어) 세계 1인자 자리를 되찾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120일뿐이었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여정이었다. 시계는 3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성현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여자월드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한동안은 박성현의 시간이 계속됐다. 당시 대회 직후 있었던 필리핀여자골프투어(LPGT) 나들이에선 주최 측으로부터 특급 의전을 받으며 여왕 대접을 만끽했고, 4월 첫 대회로 열렸던 기아클래식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해 거침없는 전성기를 달렸다.

그러나 이후 한동안 박성현의 이름은 리더보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퍼트 난조가 이어지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표가 계속해 작성됐다. 4월 ANA 인스퍼레이션 52위, LA 오픈 컷 탈락, 5월 퓨어 실크 챔피언십 35위, 6월 마이애 LPGA 클래식 39위. 그녀는 사이 세계랭킹 역시 1위에서 2위, 3위, 4위로 점차 내려앉았다. 일각에선 박성현의 부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극심한

기복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박성현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꺾지 않고 유지하며 이러한 비난을 잠재워냈다. 특유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퍼트 난조를 스스로 극복하며 제 감각을 되찾았다.

메이저대회에서 누구보다 왕성한 기량을 발휘하는 장점도 발휘했다. 반전의 계기는 지난달 KPMG 여자PGA 챔피언십이었다. 모처럼 선두권을 유지하며 우승을 다했다. 비록 준우승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본인의 표현대로 자신감을 얻는 값진 기회가 됐다.

이 대회에서 세계랭킹을 2위로 끌어올린 박성현은 마침내 1일 끝난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왕좌를 되찾았다. 한때 리운드당 30개가 넘어가던 퍼트 개수를 28개로 줄여낸 점이 결정적인 우승 요인이었다. 물론 기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인 성향(평균 드라이버 비거리 289m)도 한몫을 했다.

이번 정상 등극으로 박성현은 3년 연속 다승자 반열로 올라서며 LPGA 투어의 강자임을 또 한 번 입증해냈다. 또한 2일 발표될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 복귀를 사실상 예약하면서 자신의 귀환을 알렸다.

3월 5일에서 7월 2일까지. 120일간 온도를 달리했던 박성현의 여정은 이렇게 흘러갔다.

고봉준 기자

내가 왜 떴게?

세계 1위 미남의 비밀이 풀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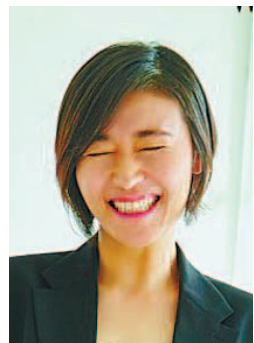
● **뷔, 아버지 사진**
: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뷔의 사진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것은 뷔의 아버지 사진! ‘그는 아빠를 꼭 빼닮았다’라는 글이 아니었으면 깜짝 속을 정도로 닮았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30대로 추정) 사진은 한 눈에 봐도 뷔스럽기 그지없다. ‘세계 1위 미남’이라는 이름을 얻은 뷔의 잘생김 유전자가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는지 드디어 ‘신비’가 풀린 느낌이다. 뷔나 ‘애뷔’나, 모두 초절정 미남들이십니다.

이건 아이에게도 물어봐야



● **김민중, 육아는 와이프가**
: “아이 는 역시 와이프가 키워야 하는 것 같다”. 김민중이 KBS 2TV 예능 ‘아이 를 위한 나라 는 있다’ 제작발표회 에서 육아에 대한 생 각을 털어냈다. 미 혼인 그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더라도 육아는 자신이 없을 것 같다”며 “와이프가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아이는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의견과 “엄마가 잘 키우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답은 없다. 사실 이런 건, 아이에게도 물어봐야 한다.

정기사 ~ 운전해~



● **김미려, 14kg 감량**
: 개그우먼 김미려가 14kg 감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화보로 입증했다. 사진 속의 김미려는 한결 날씬해진 모습으로 다양한 의상과 함께 수영복까지 소화했다. 김미려는 인터넷에서 14kg 감량의 비결로 ‘겉옷 다이어트’를 공개하기도. 화보 중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은 팔 정도야 양과 짝은 것들이다. 엄마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친전하고 귀엽다. 무력무력 자라서 나중에 엄마를 위해 운전해야지?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1타차 2위 김효주·박인비 ‘우승 예고편’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의 스포트라이트는 박성현(26·솔레이어)에게 쏠렸지만, 다니엘 강(27·미국)과 함께 나란히 1타차 준우승을 차지한 김효주(24·롯데)와 박인비(31·KB금융그룹)에게도 큰 의미를 지닌 대회가 됐다.

김효주는 2014년 19세 때 메테랑 카리 웹(호주)을 예비 챔피언십에서 꺾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 JTBC 파운더스컵, 2016년 퓨어 실크 비하마 LPGA 클래식에서 우승했다.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스윙을 한다는 찬사도

많이 받았다. 그때만 해도 우승은 더 많이 쉽게 쌓일 줄 알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2016년 이후 2년 반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다. 2017년에는 리코 여자 브리티시오픈에서 작성한 공동 7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지난해에는 US여자오픈에서 공동 선두를 차지했지만 연장에서 아리아 쥘타누간(태국)에게 패했다.

부진하자 말도 많았다. 거리를 늘리려다 좋은 스윙이 망가졌다는 말도, 스타일로 바서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어울린다는 말도 나왔다. 주위의 얘기에 속도 상했을 테지만 김

성숙해진 김효주, 올해 톱10만 5번
박인비 18번홀 이글퍼트 건재 증명

효주는 올해 톱10에 5번이나 들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2위에 올라 가능성을 또 확인했다. 12, 13번 홀에서 몇 차례의 실수만 없었더라면 우승자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그런 위에만 공을 올리면 어떻게 처리하는 능력이 빛났다. 슬럼프를 통해 더 성숙해진 김효주에게 우승은 멀지 않아 보인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생애 통산 97번째 톱10에 올랐다. 준우승상금 14만 1128달러(약 1억6400만 원)를 추가해 통산상

금 1513만6133달러(약 175억4000만 원)를 기록했다. 개인생활과 골프의 균형을 위해 많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선택과 집중을 하지만 기아클래식에 이어 이번 시즌 2번째 공동 2위다. 2018년 뱅크 오브 로우 파운더스컵에서 통산 19승을 달성한 이후 4번이나 준우승을 했다. 이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대회는 지난해 ANA 인스퍼레이션이다. 페르날라 린드베리(스웨덴)와 1박2일 동안 혈투를 벌인 플레이오프에서 패했다. 8차 연장 끝에 린드베리가 7m 장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한 것을 두고 호사자들은 아홉수를 말하지만 박인비의 골프는 탄탄했다. 살짝 빛났지만 18번 홀의 이글 퍼트가 그것을 확인시켜줬다. 조금의 행운만 더 떠났다면 박인비의 20승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김홍진 전문기자 marco@donga.com